

100년 후

저자_ 조지 프리드먼

역자_ 손민중

감수_ 이수혁

1판 1쇄 인쇄_ 2010. 1. 19.

1판 9쇄 발행_ 2010. 3. 27.

발행처_ 김영사

발행인_ 박은주

등록번호_ 제406-2003-036호

등록일자_ 1979. 5. 1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단지 515-1 우편번호 413-756

마케팅부 031)955-3100, 편집부 031)955-3250, 팩시밀리 031)955-3111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EYA(Eric Yang Agency)를 통한

Doubleday part of The Doubleday Publishing Group 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김영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349-3708-1 003320

독자의견 전화_ 031)955-3200

홈페이지_ <http://www.gimmyoung.com>

이메일_ bestbook@gimmyoung.com

좋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듭니다.

김영사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가노트 • 5

서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며, 세계의 중심은 어디인가
21세기의 세력 지도 • 11 |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방법 • 19

1 미국시대의 여명기

몰락의 전야인가, 도약의 새벽인가 • 30 | 유럽, 제국은 없다 • 35
구세대 최후의 전쟁 • 40 | 경제와 기술, 문화와 군사력에서의 압도적인 힘 • 46

2 대지진, 지하드 전쟁

미국시대 최초의 진정한 시험 • 52 | 이슬람 국가들의 대변동 • 57
미국의 핵심 지배 전략 • 62 | 여진 이후 • 71 | 미국의 권력이 21세기를 규정한다 • 74

3 인구, 컴퓨터, 문화 전쟁

인구폭발의 결말 • 78 | 인구 감소에 따른 삶의 패턴 변화 • 87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 90 | 성경과 컴퓨터의 불편한 혼합물 • 93
이념의 단층선 위에 선 미국 • 97

4 새로운 단층선

21세기의 갈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100 | 태평양, 분쟁의 씨앗 • 102
유라시아, 러시아의 부활 • 106 | 유럽, 온화한 혼돈 • 112
이슬람 세계, 공격적인 부상 • 119 | 멕시코, 잠재적인 강대국 • 124 | 대치의 결과 • 129

5 2020년, 종이호랑이 중국

고립 속에서 굶주린 나라 • 134 | 중국의 도박 • 138
세 가지 길림길 • 145 | 일본의 변종 • 149

6 2020년,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러시아

유혹의 대상이자 잠재적 도전 • 154 | 러시아의 숨겨진 동력 • 156
코카서스에서의 불가피한 대결 • 163 |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압박 • 166
유럽의 분쟁지역 • 169 | 러시아는 결국 몰락하는가 • 175

7 황금시대 이후, 절정의 위기

50년, 위기의 사이클 • 184 | 첫 번째 주기: 건국의 아버지에서 개혁자로 • 186
두 번째 주기: 개혁자에서 소도시 미국으로 • 187
세 번째 주기: 소도시에서 산업도시로 • 189
네 번째 주기: 산업도시에서 서비스 중심의 교외로 • 191
다섯 번째 주기: 서비스 중심의 교외에서 연구 이주자 계층으로 • 193

8. 신세계의 등장

떠오르는 문제 · 206 |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지정학적 변화 · 209
태생적으로 유리한 터키 · 217 | 폴란드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222
광대한 공백, 그 이후 · 227

9. 2040년대, 전쟁의 서곡

전성기의 딜레마 · 230 |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터키 · 233 | 폴란드 블록 · 239
압력과 동맹 · 245 | 우주기반사령부, 배틀스타 · 247 | 고조되는 긴장 · 250

10. 전쟁준비

타협은 없는가 · 256 |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온다 · 258 | 21세기 전쟁의 핵심 · 260
글로벌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 · 263 | 지정학적 순환의 반복 · 269

11. 세계전쟁 시나리오

전쟁의 이유, 그 이상의 것 · 282 | 공격개시의 신호탄 · 283
반격, 그리고 파멸의 길 · 289 | 전쟁의 질은 안개 속에서 꾸는 백일몽 · 292
게임 완료, 새로운 황금기를 향하여 · 304

12. 2060년대, 10년의 황금기

전쟁, 그 이후 · 308 | 집약적 에너지 혁명 · 314

13. 2080년, 주사위는 던져졌다

위협하는 멕시코 · 324 | 인구, 기술, 그리고 2080년의 위기 · 329
현금과 석유의 땅 · 334 | 영속적인 긴장감, 멕시코 부흥의 힘 · 341

에필로그 상식은 어김없이 인간을 배반한다 · 357

감수사 100년의 역사를 넘어 인간사 전반을 미리 펼쳐보는 광활한 전망 · 363

역자후기 10년, 20년……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발휘할 미래예측서 · 369